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B형)

2교시 문항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B형) - 2교시 문항

언어영역 [문항 B-1]

㉑의 관점에서 ㉒의 “번짐”이 시의 어떠한 점과 유사성을 갖는지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㉑의 시가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를 분석해 보시오. (700 ± 50자)

가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묵화(墨畵)〉, 『고등학교 문학』

나

수묵의 농담과 여백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없다. 퍼져 나가던 수묵이 그친 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색과 화선지의 여백이 교감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이것이 번짐이다. 번짐은 자신의 색을 고집하지 않고, 건너가야 할 대상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벽을 무너뜨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향한 겸허한 그리움으로 자신의 고유한 색을 흐릿하게 지울 수 있을 때 번짐은 시작된다.

그러므로 붓은 여백을 메우기 위해 색을 칠하는 동시에 여백을 만들기 위해 색을 지울 줄 아는 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꽃과 열매, 여름과 가을, 음악과 그림, 삶과 죽음 사이의 벽을 어루만지는 번짐을 위해 이제 물끄러미 흐릿해질 시간이다.

손택수, 〈번짐에 대하여〉, 『고등학교 문학』

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예술의 다른 분야와 유사하다. 다만 문학이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예술이라면, 음악은 소리의 높낮이와 리듬을, 미술은 선과 색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와 서예, 그림은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예로부터 ‘시서화삼절(詩書畵三絶)’이니 ‘시서화일률(詩書畵一律)’이니 하는 말이 내려온 것이다. 오늘날에도 시화전이나 삽화처럼 문학과 그림이 직접 만나는가 하면, 박수근의 그림을 소재로 한 박완서의 〈나무〉 같은 소설이나 사갈의 그림에서 모티프를 얻은 김춘수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시에서 보듯, 미술 작품이 은밀하고도 깊게 문학 창작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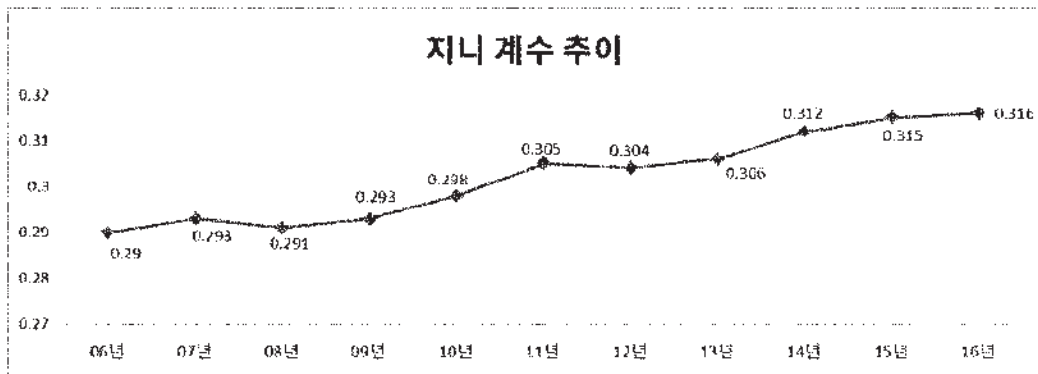
이처럼 모든 예술은 각자의 영역에 고립되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와 활발히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등학교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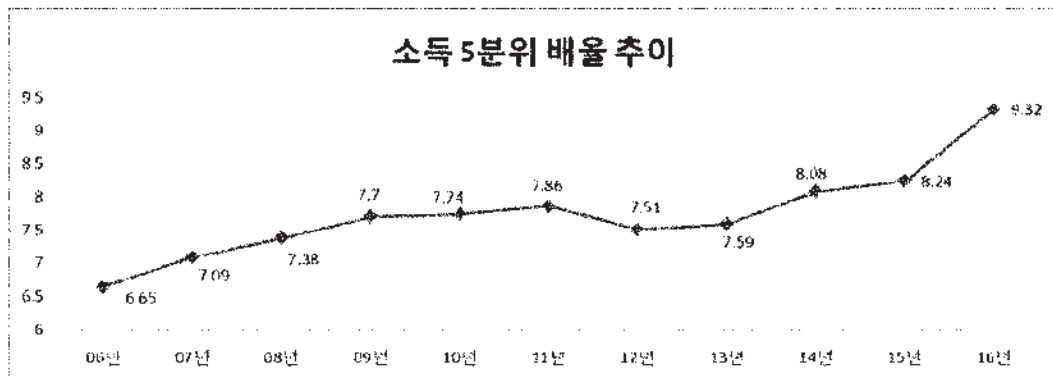
사회영역 [문항 B-2]

가의 상황을 나에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나에서 제시된 원칙을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 지니 계수 :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은 것을, 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큰 것을 나타낸다.



※ 소득 5분위 배율 = $\frac{\text{상위 20\% 소득}}{\text{하위 20\% 소득}}$

『고등학교 경제』

나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면 의사 결정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밝혔다(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경우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이거나 사회적인 행운에 의해 얻어진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여기며 이것을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자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 년 전쟁 때의 일이다.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포위되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칼레 시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에게 협상을 간청하였다. 이때 영국의 왕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항복한다면 시민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칼레에서 가장 명망 높은 6명의 시민을 골라 교수형에 쓸 바줄을 목에 걸고 영국군 진영으로 보내라. 그러면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시민들은 동의하였다. 이때 귀족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며 외쳤다. “칼레의 대표 시민이여, 나와 함께 가자. 용기를 가지고!” 곧바로 시장이 나섰고, 칼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도 나왔다. 모두 귀족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시민을 위한 희생을 자처한 이들은 담담히 왕 앞으로 나아갔다.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영국의 왕은 이 용감한 칼레 시민 6명을 살려주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B형)

2교시 해설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B형) - 2교시 해설

언어영역 [문항 B-1]

■ 일반정보

계열 및 문항		인문계-언어영역 [문항B-1]
출제범위	과목명	언어영역 : 고등학교 문학
	내용영역 및 핵심개념/용어	문학과 인접 분야, 교섭, 유사점, 연관성, 재생산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성취기준	제시문 가: 문학 - 문학과 삶-문학과 사고-문학과 성찰-김종삼, '묵화' 제시문 나: 문학 - 문학의 수용과 생산-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손택수, '번짐에 대하여' 제시문 다: 문학 - 문학의 수용과 생산-문학과 인접 분야-매체

제시문 가 - 문학 작품을 통해 타인의 문제의식,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고 표현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제시문 나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

제시문 다 -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고등학교교과서	문학	윤여탁외	미래엔	2014.3.1	342
	문학	조정래외	해냄에듀	2014.3.1	19
	문학	박종호외	창비	2014.3.1	58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시, 수필, 설명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은 후 한 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른 글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를 분석하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예술의 영역들이 사실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유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미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출제의 목적이다.

■ 문항해설

제시문 [㉠]는 문학과 다른 예술분야가 본질적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그 표현방식이 언어인지, 소리와 리듬인지, 선과 색인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외부에 드러날 뿐이다. 이들은 가극이나 오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다른 예술분야에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 형태의 관계를 맺기도 한다. 상호 소통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다.

제시문 ㉔에서 화자는 미술, 특히 수묵화에서 먹의 농담(濃淡)을 이용한 표현기법인 ‘번짐’의 예술적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화자에게 번짐은 먹으로 표현된 영역과 여백 사이의 점(漸移)지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표현방법이다. 번짐은 자신의 고유한 색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흐릿하게 지움으로써 아와 피아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화자는 이러한 번짐에서 타자와의 관계맺음에 있어 자신에 대한 겸허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미덕을 포착하고 있다. 화자는 번짐을 통해 음악과 그림 같은 다른 분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고, 여름이 가을로 겨울로 자연스럽게 변해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삶과 죽음마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로까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있다.

화자가 생각하는 이러한 번짐의 기능은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시, 특히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와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과 마음속의 울림을 노래하는 서정시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외계와의 관계맺음을 본질적 바탕으로 한다. 이는 수묵화에서의 번짐이 자신의 빛을 부드럽게 하고, 이로써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결국 경계가 있으면서도 경계가 없는 경지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㉔의 시는 (아마도 자식들이 모두 떠나 혼자 살고 있을) 할머니와 (할머니의 곁을 평생 묵묵히 지켜 왔을) 소 사이의 깊은 공감과 연민을 노래하고 있다. 저녁 무렵 하루 일을 마친 소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는다. 여기서 ‘할머니 손’은 단순한 물리적 동작에 그치지 않는다. 할머니와 소는 평생의 동반(同伴)을 통해 이미 동물과 그 주인이라는 관계를 넘어 삶의 고락을 함께 해온 미더운 동지가 되었다. 할머니와 소 사이에는 사람과 동물, 주인과 피소유물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지만, 이 벽은 이러한 주종관계를 내려놓은 ‘할머니 손’에 의해 흐릿해진다. 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담은 할머니의 손은 그러한 견고한 벽을 허무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이다. 시의 화자(관찰자)에게는 할머니와 소가 교감하는 이 장면이 한 폭의 ‘묵화(墨畵)’로 비쳤던 것 같다. 어쩌면 둘 사이의 말 없는 교감을 침묵의 대화, 즉 ‘묵화(默話)’로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 평가기준

- ① 제시문 ㉔에 나타난 문학과 인접예술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② 제시문 ㉔의 화자가 말하는 ‘번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분석력, 추론력, 논리력]
- ③ 제시문 ㉔의 ‘번짐’과 시(詩)와의 유사성을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④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작품세계를 정확히 분석·해설하고 있는가? [창의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평가항목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사회영역 [문항 B-2]

■ 일반정보

계열 및 문항		인문계-사회영역 [문항B-2]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영역 : 고등학교 경제, 윤리와 사상
	내용영역 및 핵심개념/용어	사회불평등 현상과 양극화, 사회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의 정의론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성취기준	제시문 가: 경제 - 국민 경제의 이해-국민 소득과 소득 분배 지표 제시문 나: 생활과 윤리 -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제시문 다: 윤리와 사상 - 사회 사상-개인과 자율-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 보완성-칼레의 시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시문 가 -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의 요인을 파악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나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론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자율, 권리와 의무, 책임의 상호 보완성, 관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고등학교교과서	경제	박형준외	천재교육	2014.3.1	145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외	교학사	2014.3.1	183
	윤리와 사상	박병기외	지학사	2014.3.1	247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빈익빈 부익부)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적 현상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에 대한 추론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문항해설

제시문 ㄱ의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제시된 두 그래프를 통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ㄴ은 롤스의 정의론 가운데 제2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사회 교과에서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 및 분배의 우선 원칙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제시문 ㄷ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보완성' 부분에서 제시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역사적 일화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높은 신분이나 지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말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투철한 도덕의식과 숭선수범을 보여주는 태도를 아우르는 말이다.

제시문 ㄱ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문 ㄴ의 방식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자발성과 도덕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도덕적 의무 수행 행동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제시문 ㄴ의 차등의 원칙을 이용하여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제시문 ㄴ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는 복지제도 강화, 최저임금제 시행, 세금제도의 보완 등의 예시를 예상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① 제시문 ㄴ의 그래프에서 소득 분배 불균형의 심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이해력]
- ② 제시문 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 ③ 제시문 ㄴ의 관점을 제시문 ㄱ의 상황 해결에 대입하고 한계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 [논리력, 추론력]
- ④ 제시문 ㄴ을 바탕으로 제시문 ㄱ 상황의 필요성 및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가? [논리력, 추론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평가항목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②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③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B형)

2교시 예시답안



2019학년도 논술 기출문제(B형) - 2교시 예시답안

문항	B-1	논술유형	B형 (2교시)	구분	언어
예시답안	<p>제시문 ㉔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 분야들이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작품에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본다. 제시문 ㉔에 따르면 각기 다른 예술 분야들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㉔의 ‘번짐’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시와의 유사성을 갖는다. 또한 ‘번짐’은 대상과의 경계를 허물으로써 포용과 교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시가 소설이나 그림과 같은 다른 분야들과도 소통을 이룬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㉔의 관점에서 제시문 ㉔의 ‘번짐’은 다른 대상을 포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시와의 유사성을 보인다.</p> <p>이를 토대로 제시문 ㉔를 분석하였을 때 ㉔의 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종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교감하는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문 ㉔에서 사람인 할머니는 동물인 소와 뚜렷한 종의 경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소의 목덜미의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 소와 서로의 적막함과 쓸쓸함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공감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사람과 동물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서 서로 다름이 없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제시문 ㉔는 경계를 초월하여 다른 대상과의 공감을 나누는 세계를 시에 표현하고 각기 다르더라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708자)</p>				
첨삭평가	<p>제시문 ㉔에 드러나 있는 문학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㉔의 ‘번짐’과 시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㉔의 시가 형상화하고 있는 세계를 분석한 점은 논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p> <p>제시문 ㉔의 관점에서 문학은 다른 예술분야와 본질적 측면에서 유사하며, 다른 예술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㉔의 ‘번짐’이 농담과 여백 사이의 교감이며 경계를 허무는 것임을 제대로 파악하였다. 특히 제시문 ㉔에서 소의 목덜미에 얹은 할머니의 손을 통해 할머니와 소의 교감과 공감을 형상화한다고 서술한 점이 우수하다.</p> <p>다만 제시문 ㉔의 ‘번짐’과 시의 유사성을 설명할 때 ‘번짐’과 시가 모두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낸다고 서술한 것은 적절하나, ‘번짐’이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계를 허물듯이 시에서 시적 화자도 타인이나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p>				

문항	B-2	논술유형	B형 (2교시)	구분	사회
예시답안	<p>[가]의 지니 계수 추이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소득 불평등 현상 역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나]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나]에서는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해 소수, 귀족층들의 일방적 희생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해 소득 상위 계층에게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면 소득 상위 계층의 반발과 저항으로 현실화되기 힘들 뿐더러,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은 물론 상위 계층 역시 나태해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p> <p>그렇다면 [가]에서 나타난 소득 격차와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활용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나]에서 서술하고 있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나]의 차등원칙에서는 노력으로, 즉 후천적으로 얻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닌 자연적, 선천적으로 얻게 된 것들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여겨 출발기회를 균등하게 만듦으로써 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즉, 소득 차이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위 계층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소득 불평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보상할 만한 이익을 제공해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673자)</p>				
첨삭평가	<p>답안은 논제의 요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고,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내용과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한 답안이다. 특히 제시문 [가]의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의 10년간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또 제시문 [나]의 상황을 분석하여 제시문 [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유추한 결과 ‘소득 상위 계층의 자발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임을 추론하는 데 성공하였다.</p> <p>또한 제시문 [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문제점을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점 역시 바람직하다. 제시문 [나]에서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 중 제 2원칙인 차등의 원칙도 명확하게 이해하여 표현하였다.</p> <p>아쉬운 점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가]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는 점이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적 대안을 언급했다면 완성도 높은 답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p>				